



2022

임팩트 리포트

푸른나무재단



푸른나무재단 청소년 디지털 시민교육 및 사이버폭력 예방사업 3개년 임팩트 리포트 (2020~2022)

빈 땅에 심은 푸른나무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1995년 11월 출범하여, 30년간 한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마포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푸른나무재단은 현재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등 전국 12개 지부를 통해 학교폭력 상담에서부터 화해분쟁조정, 교육, 캠페인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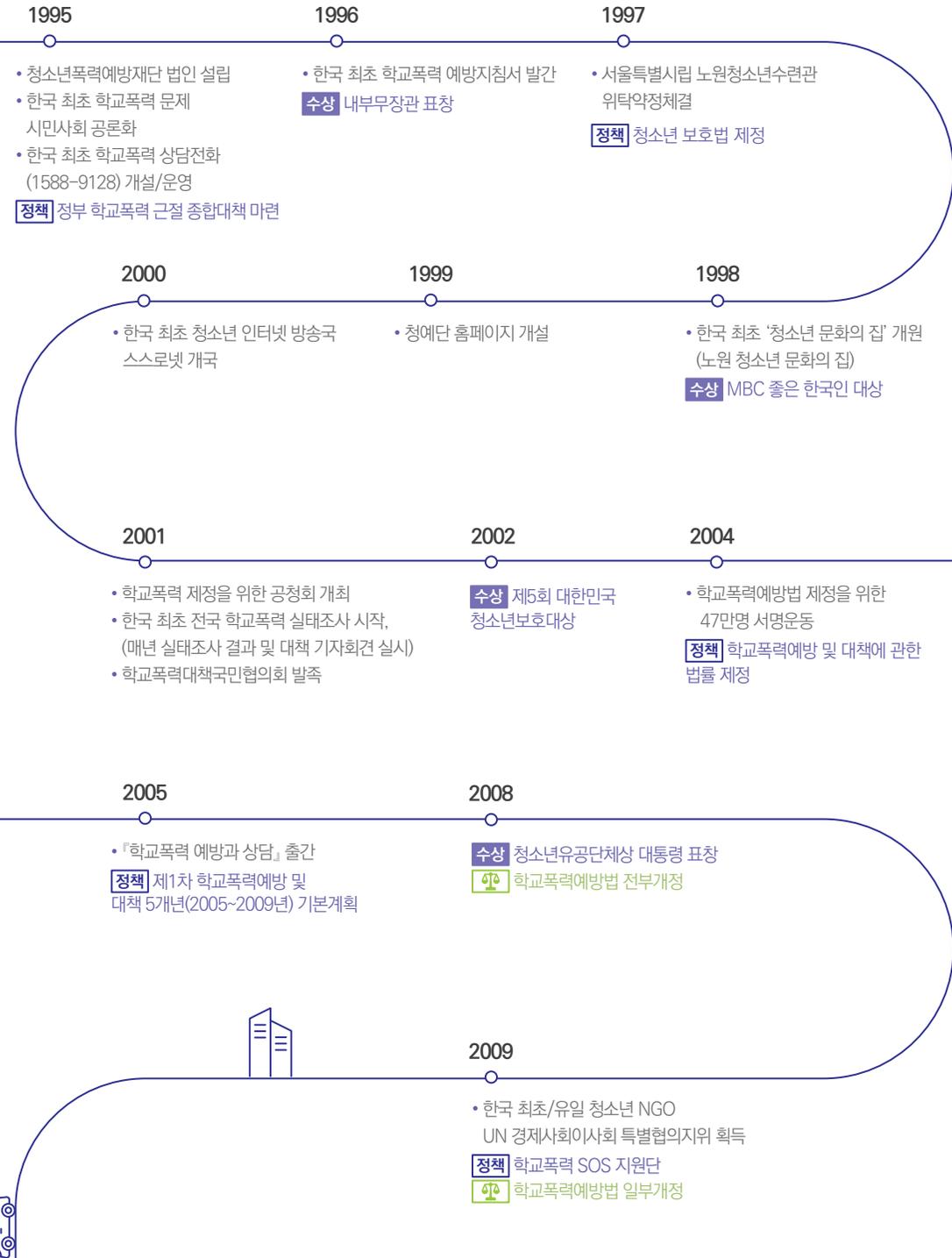
청소년 폭력, 학교폭력이라는 개념의 수립부터 사회적 관심의 모든 변곡점을, 푸른나무재단은 함께해왔습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청예단)'으로 시작할 당시, 학교폭력을 아무도 명시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 한국은 그야말로 학교폭력 불모지였습니다. "학교폭력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때였습니다."라고 회상합니다. 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꿈꾸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04년 학교폭력 특별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제정 당시 47만명이 참여한 서명운동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사회도 천천히 바뀌어 왔습니다. 지금은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학교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배치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며, 매 학기 전국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이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부정하며 '학원폭력' 등으로 불리던 것도 학교폭력으로 용어가 확립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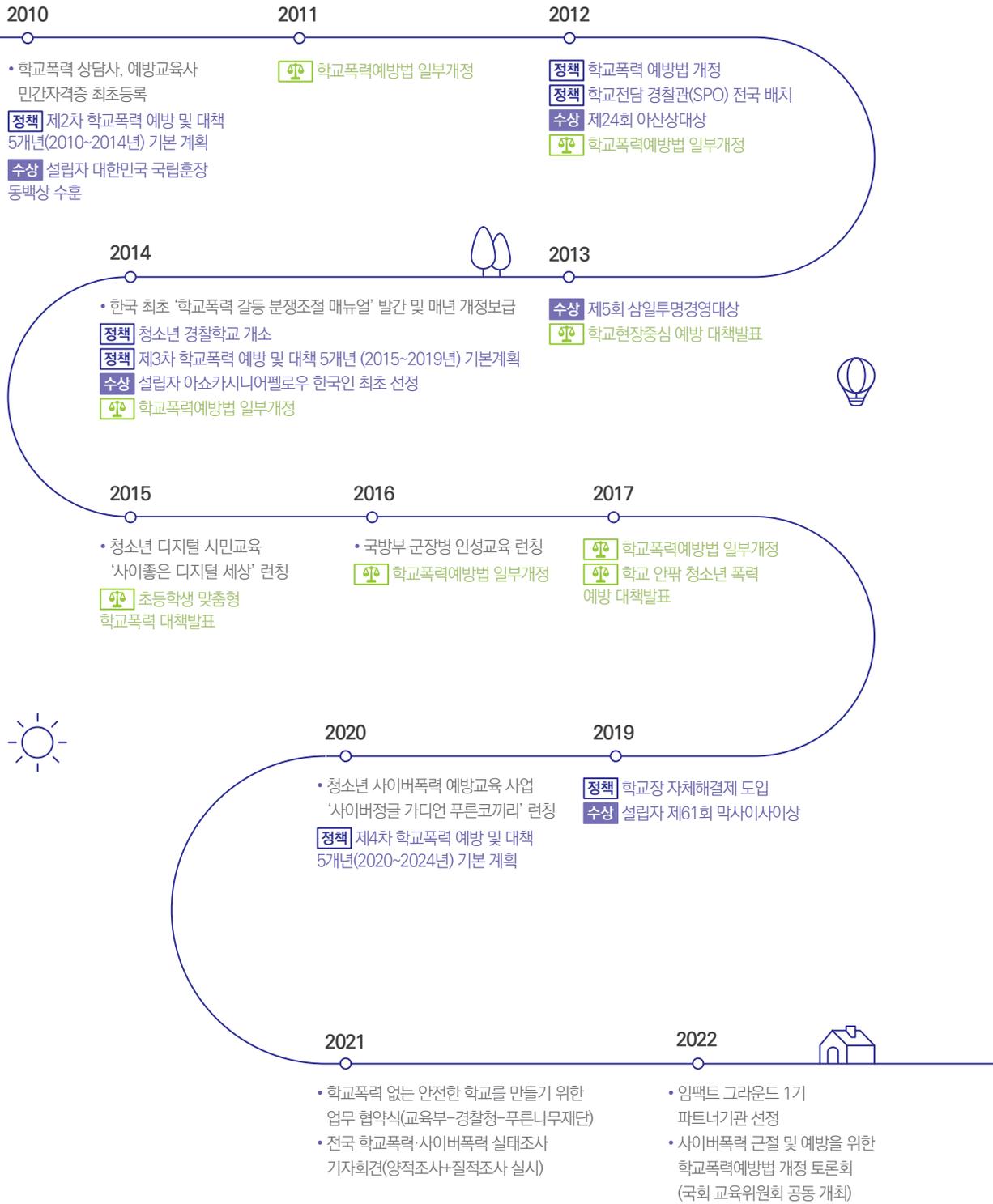
이제는 전 세계 아이들이 사이버공간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내 뿐만 아니라 UN, UNESCO 등 국제기구, 기업, NGO와 함께 디지털 시민교육과 사이버폭력 예방을 국제사회에 공론화하고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푸른나무재단 연혁

※ **정책** : 정부 학교폭력 정책 변화
수상 : 학교폭력 예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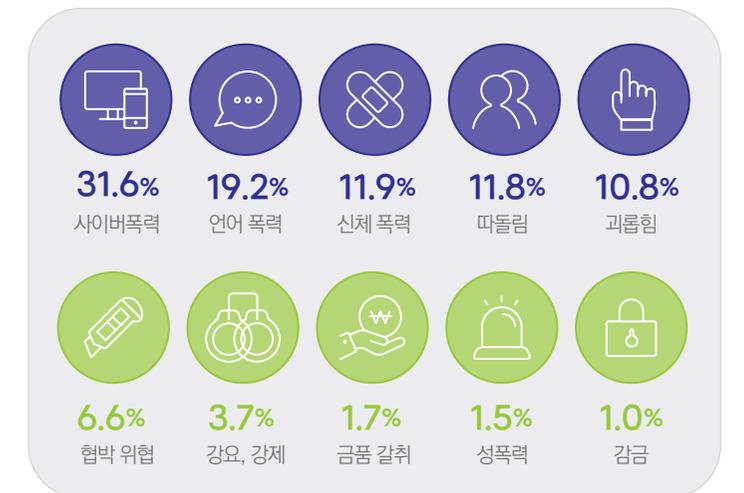
※ **정책** : 정부 학교폭력 정책 변화
연구 : 학교폭력 예방법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진화하는 학교폭력



2022년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푸른나무재단

2022년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 유형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일상화되면서 비율이 크게 늘어났고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피해율, 가해율 모두 30%를 넘겨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장소 역시 사이버 공간 > 학교 안 > 학교 밖 > 기타 순으로 빈번하게 나타나 학교폭력이 점점 사이버 공간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푸른나무재단 상담 사례에 따르면 익명 SNS 앱, 랜덤채팅, 배달서비스, 공유형 교통수단, 중고거래 등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대다수의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이버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 학교폭력은 진화하여 사이버폭력이라는 새로운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푸른나무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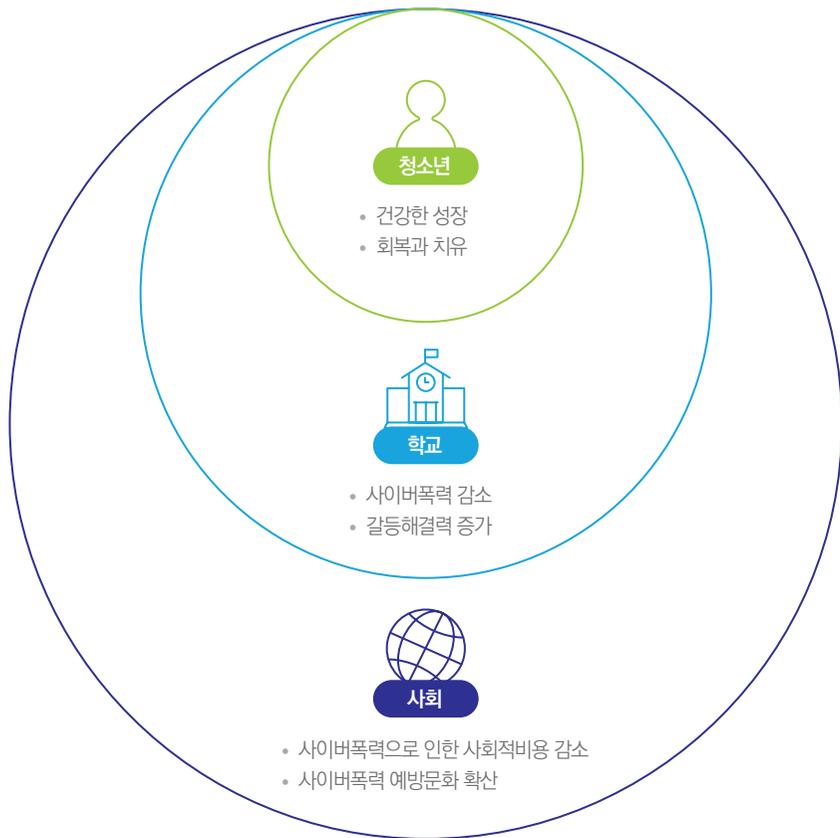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전자기기를 매개로 하여 발생하며, 연령과 상관없는 대상(개인 혹은 집단, 또래 혹은 성인)으로부터 본인이나 원하지 않는 피해를 받았다고 인식하고, 일회적 혹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횡수와 상관없이 일어나 피해를 주는 부정적인 모든 행위”

‘사이버폭력’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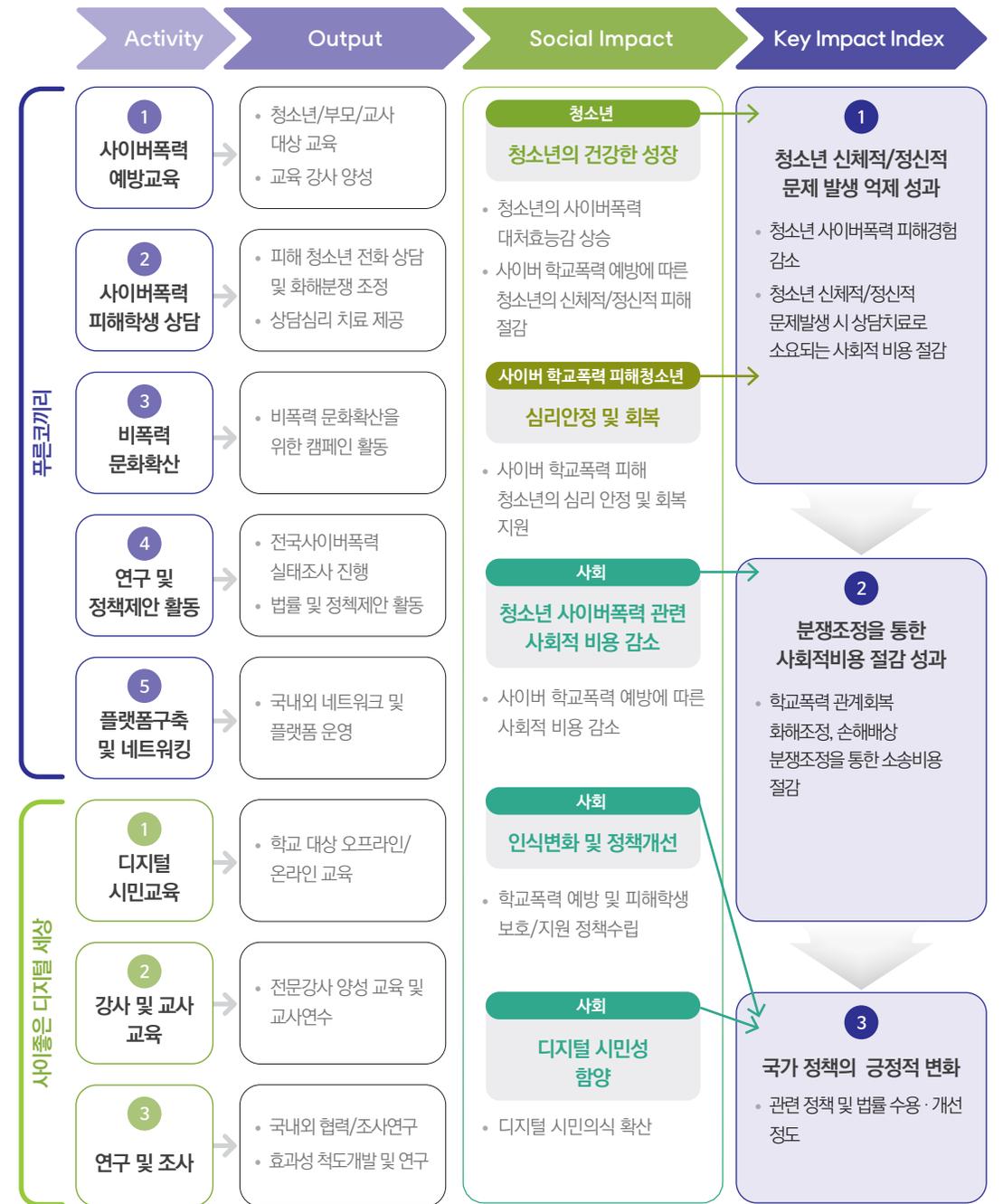
*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실천적 함의 연구(푸른나무재단, 2020)

푸른나무재단은 사이버폭력 해결을 위해 개별 사례 대응부터 시스템의 변화까지 다루는 총체적인 대응 체계와 사회문제 공론화, 제도 구축, 법률 정책 모니터링, 현장 활동의 순환체계를 강조하는 문제해결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상담을 통해 사이버폭력에 대응하는 역량을 향상시키며, 인식개선/비폭력 문화 확산 활동 등을 통해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를 확대합니다.

푸른나무재단 청소년 디지털 시민교육 · 사이버폭력 예방사업 이해관계자 맵(Map)



푸른나무재단 청소년 디지털 시민교육·사이버폭력 예방사업 임팩트 맵(Map)



화폐화 주요 성과

푸른코끼리

			
교육을 통한 성과 2,021,865,240원	상담을 통한 성과 449,481,520원	전문인력 양성 성과 662,157,760원	화해 및 분쟁조정 성과 1,727,340,992원

성과구분	활동	측정산식	성과값(원)
교육을 통한 성과	학교로 찾아가는 예방교육	교육제공량 x 교육 시장가격	488,880,000
	부모교육	교육제공량 x 교육 시장가격	166,600
	온라인 교육	교육제공량 x 교육 시장가격	332,620,000
	기타교육성과(자발적 비폭력 예방교육/모니터링단운영)	모니터링단 운영 비용 등	1,200,198,640
상담을 통한 성과	전화/web-mobile-app 상담/SNS 상담 (카카오톡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 등)	상담제공량 x 상담 시장가격	176,581,520
	법률상담 및 갈등코칭	상담제공량 x 상담 시장가격	54,300,000
	심리상담/심리치료/가족테라피	상담제공량 x 상담 시장가격	218,600,000
전문인력 양성 성과	교육 강사 양성/보수 교육 진행 후 파견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 고용성과(소득발생분)	346,557,760
	조정전문가 심화연수	교육제공량 x 교육 시장가격	209,400,000
	117 신고 상담사 연수	교육제공량 x 교육 시장가격	106,200,000
	위기사례 현장출동	위기사례 대상 현물/서비스 지원금액	42,400,000
화해 및 분쟁조정 성과 기타 성과	관계회복 화해조정/분쟁조정	제공량 x 평균소송비용	1,630,749,392
	언론모니터링 및 출동	모니터링 투입 시간 x 최저시급	54,191,600

* 푸른코끼리 5대 사업 중 3대 문화 확산, 4대 학술연구는 제외된 수치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교육을 통한 성과 310,530,692원		전문인력 양성 성과 462,864,413원
---	----------------------------------	---	-----------------------------------

성과구분	활동	측정산식	성과값(원)
교육을 통한 성과	디지털 시민성 함양교육	교육제공량 x 예방교육 시장가격	310,530,692
전문인력 양성 성과	교육 강사 양성/보수 교육 진행 후 파견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 고용성과(소득발생분)	408,264,413
	디지털 시민성 교사 연수	연수제공량 x 연수시장가격	54,600,000

대표사업 소개



* 친사회적 역량이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 때 서로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돕거나 도와려고 행하는 모든 행동과 이를 위한 역량
푸른코끼리 6대 덕목 : 정직, 약속, 용서, 책임, 배려, 소유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푸른나무재단은 두 가지 대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사업 사이버정글 가디언 '푸른코끼리'와 청소년 디지털 시민교육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입니다.

푸른코끼리

'푸른코끼리'는 사이버폭력 대응·감소를 위한 푸른나무재단의 프로그램·프레임워크입니다. 사전 예방교육부터 사후치유까지 학교폭력 당사자인 청소년과 주변인들을 위한 토탈 케어를 제공하며, 사회 전반의 문제인식 확산과 정책제안 활동까지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사이버폭력의 감소와 청소년 친사회적 역량*의 향상을 목표로 하며,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성공모형을 보급하고 국제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방교육	상담치유	예방문화	학술연구
청소년교육	하린상담	학교장선언운동	사이버폭력검사도구
부모교육	현장출동상담	대국민비폭력캠페인	전국사이버폭력실태조사
강사교육	화해분쟁조정	청소년아이디어공모전	법률및정책제안
교사(상담)교육	치유테라피	푸코포럼	
온라인교육	통합사례관리		
지지크루			

플랫폼
플랫폼(Web-Mobile-App)
협력자그룹(파트너스)
국제네트워크

푸른코끼리 사업구조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은 본 디지털(Born Digital) 세대 들이 올바른 디지털 시민의식을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전국 초등학교 생에게 제공합니다. 학년별 맞춤형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단순 지식 전달형이 아닌 놀이형 교육으로 학생들과 교사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은 디지털 세상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행동 양식으로 정의됩니다. 삶의 터전과 양식이 바뀐 청소년에게 이전의 시민교육에 이어, ‘디지털 시민성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다가옵니다. 이는 청소년 개개인이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 자각하고 역량을 함양하는 일입니다.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은 디지털 공감과 소통(감정 및 공감), 디지털 시티즌십(사이버폭력, 디지털에티켓), 똑똑한 디지털 활용(디지털 리터러시,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온라인정체성)의 3개 과정 7대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7대 주제 세부설명

감정 및 공감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고 이해하며, 나아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사이버폭력	디지털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적 행동을 비롯한 상대가 기분 나쁘게 느끼는 모든 행동에 대한 예방 및 대처 능력
디지털 에티켓	디지털 세상에서 지켜야 하는 예절
개인정보보호	나에 대해 알 수 있거나,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정보의 보호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찾아내고 필요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저작권	글, 음악, 사진, 그림 등을 만든 사람이 주인이 될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는 능력
온라인정체성	디지털 세상에서 가지는 나의 모습 자각과 인식

푸른나무재단을 통한 변화

1. 푸른나무재단은 교육을 통해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합니다.

푸른나무재단은 사이버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예방교육과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 모니터링단 운영, 교안 개발 및 리뉴얼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코끼리 교육

푸른코끼리의 교육 사업은 대상자를 직접 교육하는 청소년 교육/부모 교육, 교육 강사 및 상담 전문가 양성, 그리고 교육 운영을 위한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들은 학기별 1회, 연간 2시간 이상 학교폭력예방교육은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교과 과목에서도 학교폭력예방과 관련된 수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선 교사들은 적절한 교육안의 부재와 학교폭력 책임교사 업무 과중 문제로, 현재 수업은 청소년들의 인식제고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현장에서 대부분의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은 영상 송출 위주의 강의식 교육으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딜레마토론이란?

어느 쪽도 결정하기 힘든 상황에서 두 개의 선택 중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보며, 주어진 정보와 역할에 따라 생각과 태도가 변하는 것을 느끼는 활동. 푸른코끼리 학교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에서는 사이버폭력 목격/피해/가해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결정해보는 활동으로 구성함.
- 故문용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에 '푸른코끼리'는 전문강사가 학교로 찾아가 일반적인 지식전달이나 단순 암기식 교육, 일회성 교육에서 벗어나 스스로 경험하고 깨닫게 하는 교육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예방교육" 전체 수업은 청소년들이 탐험가(강사)를 따라 사이버 정글을 탐험하는 과정으로, 위로메시지 작성, 딜레마토론* 등의 활동을 수행하면서 6대 덕목 능력을 획득합니다. 서로 돕는 행동인 친사회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6가지 덕목은 각각 정직·약속·용서·책임·배려·소유로, 미국 긍정심리학회에서 규정한 24가지 성격 강점 분류를 근거로 서울대학교 문용린 명예교수가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수정 제시한 실천 덕목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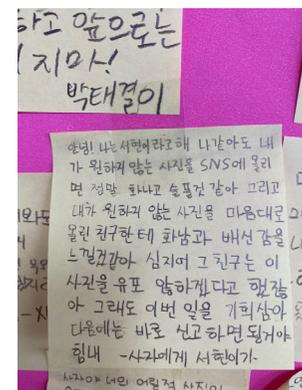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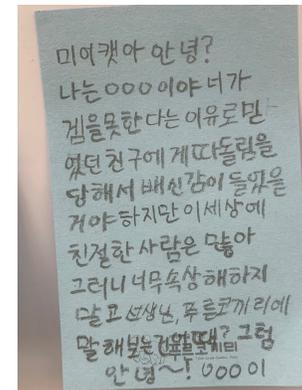


예방교육은 사전학습, 현장교육, 사후학습(총 7차시)으로 운영됩니다.

방법	차시	내용
사전학습 (온라인)	1	• 사이버폭력 이해와 유형 및 대처방법 - 사례(피해자 중심)를 통한 유형, 예방, 대처방법 안내
	2	• 푸른코끼리 친사회적 6가지 능력(덕목) - 사례(가해자 중심)를 통한 6가지 능력 이해 : 손유희(모션) 획득
현장교육 (오프라인)	3	• 사전학습 내용확인 - 사이버정글 탐험을 위한 로그인 - 니 코? 내 코? 게임 (사이버폭력 관련 텔레파시 게임) - [책임] 푸쿠즈 언더 정글 (사례를 통한 사이버폭력 유형 초성퀴즈)
	4	• 팀 단위 활동 체험 - 사이버 세상을 바꾼 위대한 탐험 1단 - [배려, 약속, 소유] 푸코의 목소리가 보여(피해자 감정 이해하기, 위로 메시지 작성) - 가로세로 퀴즈 : 1-4차시 복습
	5	• 팀 단위 활동 체험 - 사이버 세상을 바꾼 위대한 탐험 2단 - [책임] 명탐정 푸코-사진 속 감염된 단서 찾기 - [용서] 명탐정 푸코-대화 속 감염된 상황 추리
	6	• 사이버폭력 딜레마 토론 - [정직, 배려] 전지적 목격자 시점 : 사이버폭력 딜레마 상황 체험 - 비폭력 지지서명 서약서 작성 : 워크북 및 푸코앱 활용
사후학습 (온라인)	7	• 역량활동 인증미션 - 정약용채배소 이야기 : 친사회적 6가지 능력 일상생활 속 실천 방법 - 능력 사용 인증미션 : 친사회적 실천 이야기 푸코앱 업로드

사전학습은 온라인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이해와 대처에 대해 배우며, 현장교육은 재미와 흥미와 유발하는 푸른코끼리 캐릭터 스토리를 활용한 체험 활동을 통해 친사회적 행동에 대해 신념을 갖도록 진행됩니다. 사후학습은 가정에서 부모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구성했습니다. 법정교육 이수 연계 정규 수업시간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며, 사이버폭력 발생 여부, 교육청 및 유관단체의 추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교육명	교육 제공량 (2020~2022)
청소년 교육	학교로 찾아가는 예방교육	20,387명
	자발적 비폭력 예방교육	119,454명
부모 교육	부모교육	34명
온라인교육	온라인교육	33,262명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470학교, 5만 2923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2020년 시범운영부터 2021년, 2022년 점차 비수도권 교육의 비중을 늘려 교육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삼성 임직원의 높은 관심도에 따라 예방교육 보조강사 활동의 참여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폭력 진단검사 척도를 활용하여 사전검사, 사후검사, 추수검사 총 3번의 검사를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활동 소감

다른 수업들과 달리 딜레마토론이나 손유희로 놀이처럼 할 수 있어서 재밌었고. 선생님이 친절하고 재밌게 잘 가르쳐줘서 좋았습니다. 교육 이후 사이버폭력이 무엇인지, 사이버폭력 대처방법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고, 피해자 시점에서 피해자가 어떤 마음이 드는지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지현(경기 성남시/ 내정초 3학년 학생)

딱딱한 주입식 수업이 아닌 탐험을 모티브로 미션을 클리어 해 가는 과정이 아이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아이들 수준에서 사이버폭력에 대해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너무 만족스러운 수업이었습니다.
이새봄(전북 남원시/ 용성초 5학년 교사)

아이들의 적극성(발표)과 솔직한 의견들을 주고받는 모습들이 생각 이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깊고 넓게 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사고, 사회 이슈들) 그래서 교육할 때에도 자세하게 알려줘야 하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잘 준비된 강의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애써 전해주시는 푸른나무재단에게 감사드리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소라(삼성전기 프로)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은 코로나19 시기에도 대면교육을 요청할 정도로 교육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2022년에는 신청 대비 선정율이 12.7:1로 높은 경쟁율이 나타나 현장의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전국 초등학교생 260만명 중 0.49%에만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푸른코끼리 교육 효과성 분석

조사개요 2022년 푸른코끼리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성 검사
조사기관 박중호 건국대학교 교수 연구진과 함께 푸른나무재단 자체 개발
조사방법 사이버폭력 검사도구 활용 (총 84문항)

사이버폭력 진단검사 결과, 프로그램 실시 후

검증 결과, 예방교육 이후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또 사이버폭력 목격 시 피해 학생을 돕는 등의 방어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사이버폭력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대처효능감은 학생 개인 수준, 학급 수준 모두에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푸른코끼리 예방교육의 핵심인 친사회적 역량(정직, 약속, 용서, 책임, 배려, 소유)도 예방교육 이후 모두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푸른코끼리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성 분석 및 고도화 방안 연구 (푸른나무재단, 2022)



푸른코끼리 지지크루(동아리)

청소년 당사자의 자발적 비폭력 문화를 확산하는 동아리로 사이버폭력 예방문화 확산을 '지'지하고, 사이버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지지크루' 를 운영합니다. 지지크루는 비폭력 예방교육 동아리로, 청소년 스스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하며 사이버폭력 심각성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와 책임의식을 증진시킵니다. 푸른코끼리는 지지크루 활동지원(물품,지원금) 및 우수 지지크루를 선정·시상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합니다. 2021년 사업결과, 지지크루 소속 학교의 80%에서 작년대비 학교폭력 교내건수 유지·감소하였으며 사이버폭력 진단검사 결과, 참여자의 사이버폭력 대처(방어)효능감 상승(4.36점/5점→4.46점/5점)하여, 사이버폭력 예방 인식 및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지크루 활동 분야

구분	활동 분야	내용
필수	오프라인 캠페인	교(관)내·외 비폭력 가두 캠페인 진행
	피해자 지원 활동	사이버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눔 문화 활동
선택	영상콘텐츠 제작	UCC, 애니메이션 등 사이버폭력 예방 관련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상영
	온라인 챌린지	사이버폭력 관련 온라인 챌린지 기획 및 진행
	문화예술 활동	사이버폭력 관련 연극·뮤지컬 창작 및 공연, 전시회 기획 및 진행 등
	학술활동	사이버폭력 관련 독서토론·토코콘서트 진행, 소논문 작성, 정책 제안 등
	국제활동	사이버폭력 관련 국제회의 참여, 해외모금(펀딩) 플랫폼 운영, 국제연구 자료 조사 및 번역 등
	기타활동	기타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

지지크루 활동 우수사례(필수활동)

	내용
오프라인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폭력 유형, 대처방안 소개자료 제작, 배부 비폭력 지지서명, 푸른약속 캠페인 참여 이벤트 개최 사이버폭력 퀴즈대회 개최 사이버폭력 피해자를 위로하는 메시지 작성 및 전시 사이버폭력예방 이행시 짓기
피해자 지원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모금 마련을 목적으로 베희시장 운영 학생들이 각자 물건을 가져와 팔며 판매한 수익금 50% 기부 기부금이 사이버폭력 피해자 지원으로 사용됨을 사전교육을 통해 안내

지지크루 활동 우수사례(선택활동)

	내용
영상콘텐츠 제작	<p>사이버폭력 예방 단편 영화 '우리가 만드는 밝은 세상' 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폭력 방관하던 소년이 학급의 사이버폭력 문화 바로 잡는 내용으로 구성 학생들이 시나리오 구성 및 역할 구성 촬영(카메라 각도, 장소, 동선 등)에 대해서 학생과 멘토 협의하여 진행 사이버폭력 예방 수업자료로 활용
기타(예술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폭력 예방송 제작 사이버폭력 예방 만화/포스터 전시회 개최 푸른코끼리 캐릭터 엽서 제작 및 응원 편지 쓰기 사이버폭력 예방 굿즈 제작 및 펀딩 진행



강사 양성 교육

푸른나무재단은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예방교육 제공을 위하여, 강사 교육 및 양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푸른나무재단은 약 360명의 강사 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푸른코끼리 예방교육은 40명의 강사가 활동하였습니다. 한 학급당 두 명의 강사가 배치되어 강사 한 명 당 평균적으로 25 번의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교육의 질적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강사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현장교육 피드백(강사, 교사, 학생, 모니터링단)을 바탕으로 교안과 교보재를 개발하고 업데이트합니다.

푸른코끼리 학교로 찾아가는 예방교육 강사 교육 과정

- 신규강사



- 기본과정 양성교육(온라인) / 총 18차시
- 심화과정 양성교육(오프라인집합) / 3일
- 필기 및 시연평가
- 보수교육 / 총2회(상, 하반기)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웹사이트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교육

교육명		교육참여자수(2020~2022)
학교 교육	오프라인 교육	81,631명
	온라인 교육	1,315명
강사 교육	양성교육	64명
	보수교육	105명
교사 연수	기본/심화연수	273명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의 '찾아가는 학교교육'은 3년(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간 초등학교 82,946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전문 강사가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7대 시민성에 대한 학년별 맞춤 교육 진행 및 놀이형 교육 콘텐츠 제공하여, 2023년 교육모집 경쟁률 10.7:1을 기록하는 등 인기리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밖에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전문강사 양성교사 연수, 커뮤니티 형성 및 효과성 연구, 교재 개발 등 교육의 질과 예방 프로그램 효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교육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디지털 세상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 기반의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전 학년(1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시민성 7대 주제를 바탕으로 '디지털 세상으로 떠나는 여행' 컨셉으로 디지털 시민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놀이 중심의 미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에서는 현직 교사 대상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제공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 연수의 경우 학교에서 아이들을 매일 대면하며 디지털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해당 교육을 통해 다양한 교과과목과 접목하여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높이 평가 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일선에서 문제를 직접 맞닥뜨리고 아이들을 매일 대면하며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참여교사들은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프로그램을 학습하여 학교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2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교사연수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은 디지털 시민성 가치 확산과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습형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초등학교원 273명을 대상으로 교사연수를 제공하여 전국 학교 현장에서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민 교육 콘텐츠 확산을 위해 초등학교 기반의 디지털 시민 교육 활용 능력 확산을 위해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교보재를 활용한 실습을 진행하며, 매년 명사를 초청하여 디지털 시민성 특강을 진행합니다.



연번	구분	소속	성명	강의주제
1	2020	초당대학교 교수	정경은	카카오와 함께 미래 청소년을 위해 준비하다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이력과 효과성
2		성균관대학교 교수	최재봉	신인류 미래청소년(포노사피엔스)의 이해
3	2021	카카오 이사	이재승	인공지능(AI)과 미래교육
4		강원대학교 교수	김상균	메타버스와 학교교육의 연결
5	2022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박새롬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위협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발전 방향
6		별별한국사연구소장	최태성	소통의 역사 : 역사적 사례를 통한 시민성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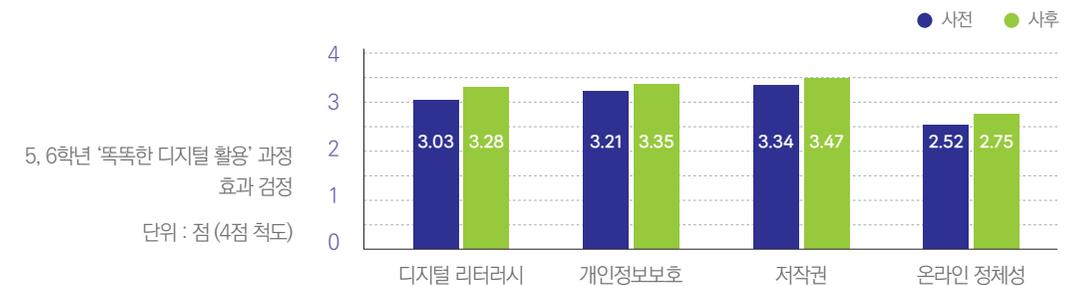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교육 효과성 분석

조사개요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프로그램의 효과성 조사

조사방법 디지털 시민성 측정도구를 활용한 프로그램 참여 전-후에 설문조사

분석 결과

총 10,522부의 설문을 분석한 결과 감정 및 공감, 디지털 에티켓, 사이버폭력, 디지털 리터러시,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온라인 정체성 등 7대 세부 주제에서 모두 프로그램 참여 전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고학년일수록 디지털 시민성의 인식 수준 점수가 높았고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의 인식수준이 더 높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써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교육이 청소년의 디지털 에티켓과 사이버폭력 요인 개선에 긍정적인 작용을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푸른나무재단은 사이버폭력 위기상황에 즉각 대응합니다.



푸른나무재단은 사이버폭력 피해자가 처한 긴급한 위기상황을 돕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서의 핫라인 상담, 현장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출동상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분쟁조정 등 전문적인 대처방안을 제공합니다.

위기대처: 핫라인 상담

푸른코끼리는 전화·어플리케이션·웹사이트·SNS 등을 통한 긴급 상담을 운영하여 실시간으로 사이버폭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1588-9128(구원의팔) 핫라인 긴급전화를 운영하여 매년 1,500 건 이상의 상담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상담전화를 통해 상담 또는 호소 내용에 따라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하고 조기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방상담과 찾아가는 상담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현장출동상담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푸른코끼리 플랫폼 사이버 상담, 지식인·블로그 등 인터넷상의 찾아가는 상담, 재단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상담 등 다양하고 청소년에게 친숙한 플랫폼에서 접근성을 늘리고, 즉각적인 사이버폭력 위기청소년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핫라인 상담	전화상담(1588-9128)
	Web-mobile-app 상담
	SNS(카카오톡 채널, 인스타, 페이스북 등) 상담



위기대처: 현장출동상담

현장출동상담은 핫라인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보가 있는 대상(언론모니터링) 발굴, 의뢰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출동상담 필요 시 전국 어디든 2인 1조로 출동하여 현재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내용을 파악 후 필요한 도움(경제적, 의료비, 법률상담,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변화하는 사례를 파악하고 상담 프로세스를 고도화 시키며 사이버폭력의 가변화에 대응방법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제공건수(3개년 누적)

사례

언론모니터링 출동사례

- SBS(사이버 성폭력 및 사칭) 기사 확인 후 출동하여 피해학생 부모 상담 후 상담지원, 의료지원, 생활지원 연계(2021/07/07)
- 중앙일보(사이버폭력 및 집단폭행) 기사 확인 후 출동하여 피해자 부모 상담 진행 및 법률 자문, 의료지원(2022/03/10)

위기상황 현장출동사례

-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사이버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사칭) 사안으로 9128 전화상담 접수 후 현장 출동 서비스 진행(2022/04/22)
-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이버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사칭, 협박 등) 사안으로 9128 전화상담 접수 후 현장 출동 서비스 진행(2022/09/16)

위기대처: 화해분쟁조정

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 피가해자 동기가 있을 때, 전문가가 개입하는 화해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양측 간 관계의 회복과 개선의 욕구가 있는 대상자에게 대화, 소통 등 전문적 관계회복 프로그램 지원, 분쟁의 확대와 손실 예방을 위해 손해배상 분쟁조정, 법률상담을 제공하여 원만한 사안 해결을 도모합니다. 최근 학교폭력이 법적 공방의 대상이 되는만큼 법률상담 및 갈등코칭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푸른코끼리는 사이버폭력 분야 법률전문가를 위촉하여 사례에서 법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연계합니다.



제공건수(3개년 누적)

법률상담 사례

- 현재 고등학생이 된 피해자(고등학생,남)에게 피해학생이 중학교 당시에 교제하였던 전 여자친구의 부탁을 받은 가해학생이 sns 게시글을 내려줄 것을 강요하자 피해자는 거부하였고, 이에 사이버 언어폭력에서 실제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게 됨. 하지만 가해자가 검찰로부터 경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자치위원회 결과 서면사과와 교내봉사 5일 등 매우 경미한 조치 결정을 받은 점 등에 수긍할 수 없는 피해자 측이 법률 자문을 요청하여 연계
- 가해학생들이 피해자(중학생,여)의 신체사진을 유포하고, 단체 특방을 만들어 사이버 언어폭력 및 사이버성폭행을 가함. 피해자 측은 가해자의 무성의한 태도에 최고의 처벌을 원하여 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여 연계

3. 푸른나무재단은 사이버폭력 당사자와 가족의 회복을 지원합니다.

사이버폭력 위기청소년과 부모, 가해자의 회복과 치료를 위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치유 테라피, 통합 사례관리 등 사전대처와 사후치유를 지원합니다.



제공건수(3개년 누적)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이버폭력 피해 청소년에게 정확한 진단을 위한 심리검사 및 해석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상담심리치료를 제공합니다. 요청자의 상태에 따라 JTCI, SCT 검사 등 적절한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상담원을 연결하여 심리상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담기법(놀이치료, 심리검사, 미술치료)을 사용하여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를 지원합니다.



가족테라피

재단은 가족테라피 캠프를 운영합니다. 2박 3일 진행되는 캠프를 통해 사이버폭력에 노출된 위기청소년 가족의 부모·자녀 간의 소통능력과 사이버폭력 문제 인식을 향상시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도록 합니다. 참가 가족은 2박 3일 동안 휴대폰을 반납하고 마음챙김(명상), 가족소통(가족 간의 대화),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등의 일정에 참여합니다.

프로그램 참여 후 참가자들의 가족관계적도는 참여 전 대비 12%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참가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4.7점/5.0점으로 나타나 가족테라피의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2022년 가족테라피 영상



가족테라피 일정표

구분	1일차	2일차	3일차
06:00~08:00	출발(이동)	마음챙김(스파명상_자율)	마음챙김(스파명상_자율)
08:00~09:00		아침식사	아침식사
10:00~11:00		마음챙김(힐링 마사지)	가족소통(우리가족 가족문답)
11:00~12:00		응달샘스탬프투어	
12:00~13:00	점심식사	점심식사	점심식사
13:00~14:00	숙소 입실 및 환복	가족 소통(가족요가)	고도원님의 '꿈과 꿈 너머 꿈' 특강
14:00~15:30	오리엔테이션	부모/자녀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설문조사 및 환복
15:30~18:00	마음챙김(싱글 명상)		
18:00~19:00	저녁식사	저녁식사	귀가
19:00~20:30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푸코 퀴즈대회)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푸코 나노블럭 만들기)	
20:30~23:00	마음챙김(스파명상_자율)	마음챙김(스파명상_자율)	
23:00 ~	취침	취침	

통합사례관리

사이버폭력 피해청소년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한 특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관과 협업을 통해 사이버폭력 피해청소년에게 개인-가족-학교-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사이버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네트워크 기관

서초구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 117신고상담센터, 동부교육지원청, 하나금융재단, 교육청, 경찰청, 상담센터(사설심리상담센터 및 신고상담센터), 복지센터(청소년복지센터)

4. 푸른나무재단은 비폭력 문화를 확산합니다.



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사이버폭력의 문제상황을 알리고 시민들의 문제해결 참여를 독려합니다. 대표 캠페인으로 학교장 선언운동, 대국민 비폭력 캠페인을 진행하고, 청소년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이 참여하는 문제해결을 독려하며, 매년 푸코 포럼을 열어 공론화의 장을 형성합니다.

대표 캠페인

학교장 선언운동

학교장의 사이버폭력 예방에 함께하겠다는 비폭력 선언을 통해 학교 차원의 적극적인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를 선도하고, 교내 비폭력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캠페인입니다. 2020년 10월 15일 영광중학교를 시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선착순으로 모집되는 인기 캠페인으로, 목표한 이상의 신청과 신청 지역 확대를 통해 비폭력 문화 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학교장 선언운동은 학교장의 관심과 청소년들의 참여로 사이버폭력 예방문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현판이 부착 되어 학부모들에게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 2022년 기준 참여 학교 중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감소한 학교는 15개교이며, 모두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89학교의 학교장과 14만 4116명의 청소년이 사이버폭력 예방 문화 확산에 동참하였습니다. 또한, 비폭력 문화 확산을 위해 해외 NGO(필리핀, 베트남 등)와 협력하여 국외보급을 준비하고 있으며, 교내 연계 캠페인 '푸른등갯길 캠페인 진행'으로 교내 비폭력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2020	2021	2022
참여 학교장 수	100명	205명	84명
참여 학생 수	31,184명	99,707명	44,409명

이재순(경기 수원시/매원초 교장)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들이 1년의 공백기간 동안 비대면 수업을 하며 사이버상에서만 만나, 그동안 사귀거나 배려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가 없었음. 올해 사이버폭력 예방주간에 푸른코끼리의 사이버폭력 예방 캠페인을 통해 아이들이 올바르게 잘 성장해서 살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여 큰 도움이 됨.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함.

용인심곡초등학교 학부모(익명)

최근에는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도 많아, 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요새 사이버폭력이 제일 걱정됨.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이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 교장선생님이 사이버폭력 예방에 앞장서주셔서 안전한 학교문화를 기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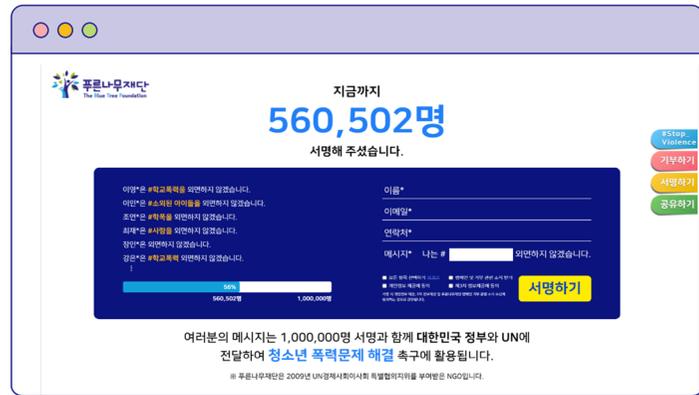
푸른코끼리 홍보대사 AB6IX



대국민 비폭력 캠페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공론화하고 경각심을 일으키며 대중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자발적인 비폭력 문화 확산 동참을 유도합니다. 푸른나무재단은 비폭력 지지서명을 통해 이들의 목소리를 대한민국 정부와 UN에 전달하여 청소년 폭력 문제해결을 촉구합니다. 2022년에는 SNS 캠페인(푸른약속 캠페인, K-POP 아티스트 비폭력 지지선언), 캠페인 영상, 비폭력의 달 행사 등의 활동을 진행하여 총 59,719명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2020	2021	2022
캠페인 참여자	1,000명	43,402명	59,719명



청소년 아이디어 공모전

사이버폭력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을 다양한 작품의 형태로 공모하여 사이버폭력 예방문화 확산에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합니다. 웹툰, 포스터, 뮤직비디오, 앱개발 분야에서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예방 및 해결방법, 피해자 위로·응원 메시지 등을 주제로 한 작품을 공모하고 우수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공모 선정작은 온라인 전시회 형식으로 배포하고, 푸코포럼에서 발표하여 참여한 청소년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집 제작을 통해 역대 수상작들을 아카이빙해오고 있습니다. 2022년도부터는 푸른코끼리 협력사(교육부, 삼성,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울교육대학교의 훈격 표창을 진행하여 공신력을 높였습니다.

	2020	2021	2022
접수 작품수	45편	220편	258편
참여자 수	198명	601명	420명



비폭력 지지서명

2022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수상작

주제

가해자들의 웃음이 피해자들에게는 악마의 웃음소리와 같이 느껴졌을 것이라는 것을 표현했다.

기획의도

이 포스터를 본 사람들이 대화창에 메시지를 쓸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쓰길 바라면서 만들었다. 아무리 그럴 의도가 없어도 누구에게는 그게 무섭고 힘들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하고 싶었다. 장난으로 하고 웃는 것이 당하는 사람한테는 악마의 웃음소리로 들릴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

대상 누군가의 웃음소리 그에게 악마의 웃음소리
성명 흥진기 소속 세인트폴 서울학교



푸른코끼리 포럼

푸른나무재단은 매년 '푸른코끼리 포럼'을 개최하여 사이버폭력의 최신 사례를 통해 심각성을 알리고, 푸른코끼리 예방교육의 성과 공유와 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외에도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로 대안을 제시하며 사이버폭력 공론화의 장을 마련합니다. 2021년 제 2회 푸코포럼은 사전신청 인원을 뛰어 넘어 추가 인원 개설하는 등 15,029명이 참여 하였고, 2022년 제3회 푸코포럼은 총 22,611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주제

2020년 사이버정글 속 온(溫)택트를 제안하다

2021년 사이버폭력 백신, 푸른코끼리 '조기 감지-초기 대응'

2022년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이버폭력, 그리고 소멸



주요 연사(2020~2022년)

문용린 푸른나무재단 고문, 박종호 건국대학교 교수, 이광형 KAIST 총장,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 최동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최원기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최재봉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규연 중동초등학교, 김해은(20세), 박지은(19세), 서영인 서울대학교 학생회장, 이소은 망성초등학교, 이주하 광명남초등학교, 이재현 이대부속고, Mark Andrei P. Pagana 필리핀 ALLS고등학교

김어진 수원인계초등학교 교사, 김정선 인천새말초등학교 교사, 김학현 관악경찰서 경감, 박태준 작가, 방세영 탐동초등학교 교사, 양재은 한빛고등학교 교사, 이백형 관악경찰서 경위, 임민식 산격중학교 교사, 한정일 서울지방경찰청 경감

Marilyn Campbell 호주 NHMRC 폭력예방 교수, Nicholas Carlisle 영국 NGO Power of Zero 대표, Peter K.Smith 영국 골드스미스대학 명예교수, Sameer Hinduja 미국 Cyberbullying Reserch Center 공동디렉터 교수, Tina Meier 미국 NGO Megan Meier Foundation 설립자, Trisha Prabhu 미국 NGO ReThink 설립자

김종오, 김해은 삼성전기 프로, 윤지현, 윤원규, 윤치웅, 홍자경 삼성전자 프로

주요내빈(2020~2022년)

김부겸 국무총리, 김창룡 경찰청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조해진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우원식 청소년지킴이 국회의원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조경태 교육위원회 위원, 김성환 정책의원의회의장, Stefania Giannini 유네스코 교육분야 사무총장보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역대 축사인사

AB6IX(무코 홍보대사), 브라이언·아웃사이다·이상봉정찬성·차지연·최정원(푸른나무재단 홍보대사), 김자인(암벽등반 선수), 김해준(개그맨), 너덜트(유튜버), 박태훈(수영선수), 신유용(삼보선수), 엄지윤(개그우먼), 우주소녀(아이돌 그룹), 조각가의 스물빅클래스(유튜버), 정세운(가수), 크레비티(아이돌그룹), 쿠크닥스(유튜버), 페이커(프로게이머)



5. 푸른나무재단은 연구를 통해 사이버폭력 예방 제도 및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연구1. 전국 청소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실시

푸른나무재단은 2000년도 첫 조사 실시 이후 21년째 전국 단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왔으며, 2020년도부터는 '사이버폭력 경험(피해-가해-목격)' 조사항목을 추가하는 등 실태조사의 주요 항목으로 파악하여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로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가장 최근 조사 결과에서 사이버폭력 증가폭이 매우 큰 것(15%p)으로 나타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폭력 양상에 경각을 울리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푸른나무재단은 매년 사이버폭력 문제를 알리고 대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여 관련 제도의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20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주요사항

- ① 학교폭력 피해 유형 사이버폭력피해율 31.6%: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폭력이 1위, 역대 최고치
- ② 사이버폭력 피해양상의 다양화(배달서비스, 공유형 교통수단, 중고거래 앱 등)
- ③ 피해-목격 학생이 모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1순위로 ' 주변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
- ④ 사이버폭력의 경우 피해보호 조치 기준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
사이버폭력 피해율 20년 5.3% > 21년 16.3% > 22년 31.6%

연구2.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진단검사 개발 및 효과성 연구

2020	사이버폭력 검사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2021	사이버폭력 검사도구의 타당화 연구
2022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성 분석 및 고도화 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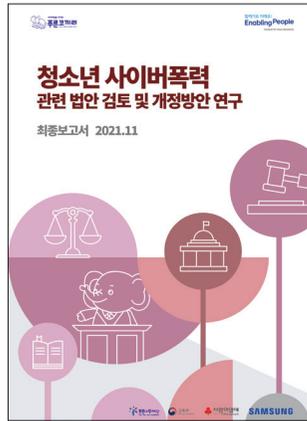
푸른나무재단은 건국대 박종호 교수 연구진과 협력하여 사이버폭력의 정확한 문제 진단을 위해 '사이버폭력 진단검사 개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사이버폭력 검사도구가 없어 이를 반영한 사이버폭력 검사도구를 한국 최초로 개발하였습니다.

1차년도(2020)에는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문항의 기초를 닦고, 2차년도(2021)은 양적, 질적 FGI를 통한 문항의 타당성 검증과 검사 결과표 템플릿 제작이 연구되고, 3차년도 실제 개발된 도구를 활용하여 푸른코끼리 예방교육 참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 효과성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증 결과, 대처효능감, 친사회적 역량 등에서 유의미한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후속연구로 예방교육의 효과 지속성에 대한 중단연구와 성별, 학교, 지역 등 요인별 상호작용 효과 연구 등이 제안되어 사이버폭력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년 변화하는 사이버폭력을 대응하는 척도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구3.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제도적 검토 및 대안 모색

2020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실천적 함의 연구
2021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법안 검토 및 개정방안 연구
2022	청소년 사이버폭력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률 및 정책 개정안 마련 연구

1차년도(2020)는 ‘사이버폭력’을 재정의하여 논의의 기초를 다지고, 관련 법령과 대응현황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2차년도(2021)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5가지 분야(피해자 보호 방안, 가해자 처벌 강화 방안, 사이버폭력 예방 강화 방안, 국제적협력 구축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3차년도(2022)에는 실질적 법조문을 구성하고 교육위원회와 공동 개최한 국회토론회를 통해 법안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을 중심으로 ‘사이버폭력 개념 포함 방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강화 방안/교육감 임무강화 방안/예방교육 강화 방안’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책 제안 현황을 매년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논의 등 정책제안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 분석 및 정책제안 활동은 최종적으로 학교폭력예방법 내 사이버폭력의 사안을 다루며 개정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0	법 개정과 정책제안을 위한 제반 작업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0년도 시행계획의 전 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 정책(교육부)에 반영
2021	정책제안 활동 88회 - 정책제안을 위한 현행 법/제도 개정안 발의 모니터링 및 검토 24건 - 정책제안 제반활동: 교육부, 문체부, 경찰청, 경찰서, 교육청, 서울시장 후보 등 관계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논의 52건, 연구노트 및 간행물 공유 12건
2022	정책제안 활동 62회 - 현행 법제도 개정발의 모니터링 27건 - 정책제안 제반 활동 24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토론회 개최(11/3) - 정책제안 보고서 발간 2건 - 국제학술대회 발표 승인 3건 - 연구노트 및 간행물 공유 6건



연구4.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의 효과성 검증 및 문헌 연구

2021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교육 효과성 검증 - 디지털 시민의식 교육 이론적 검토 -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2020년~2021년 2개년 진행분)
2022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교육 효과성 검증 및 개선방안 연구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시대적 함의 연구(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푸른나무재단은 2019년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척도를 개발하여 매년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향상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개년 진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였으며, 디지털 시민의식 교육의 이론적 검토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시대적 함의를 연구하여 디지털 시민성의 역사적 맥락을 검토하고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디지털 시민성의 개념을 제안하였습니다. 푸른나무재단에서 디지털 시민 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현장 중심의 연구 결과로는, 7가지 영역에서 모두 유의미한 상승이 관측되었으며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저작권 수준 등은 대폭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매년 진행되는 효과성 연구를 단일집단이 아닌 비교집단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보다 정밀한 결과를 얻을 예정이며 디지털 시민성 인덱스 등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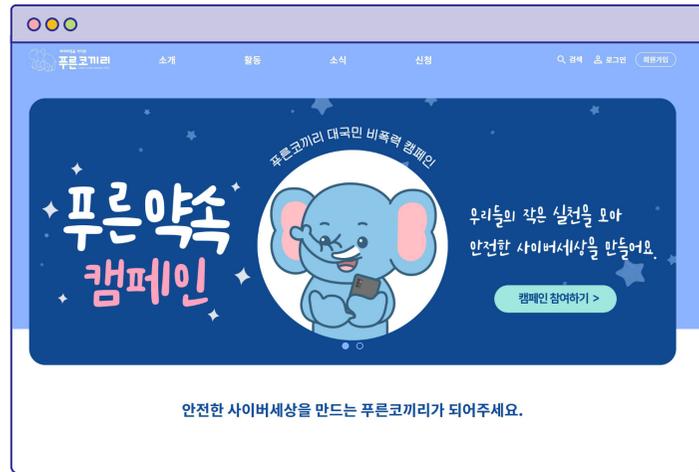
6. 푸른나무재단은 사이버폭력 대응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푸른나무재단은 사이버폭력 예방 Web-mobile-app 플랫폼 구축으로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 및 관련 자원 집적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 모집·관리를 일원화합니다. 2020년 푸른코끼리 플랫폼 개발에 이어 2021년 총 20,349명 이용, 2022년 총 36,676명 이용하였습니다. 플랫폼 전년대비 이용자 약 80% 증가하여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푸른코끼리는 모바일 앱을 통해 교육, 상담 등 사이버폭력예방과 관련 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0	2021	2022
사용자수	(플랫폼 개발)	20,349명	36,676명



푸른코끼리 웹사이트



GOOGLE PLAY



APP STORE



푸른코끼리 어플 다운로드

피해를 당하고 있어도 이야기할 곳도 없고, 선뜻 도움받을 수 없어서 답답했는데 사이버폭력 전문 앱이 생겨서 다행입니다. 사이버폭력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고 해결할 방법이 뚜렷하게 없는데 사실인데,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깊이 고민한 후 여러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어플 리뷰 중

7. 푸른나무재단은 사이버폭력 문제대응 네트워크를 만들어갑니다.



협력자그룹(파트너스) 운영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청소년 당사자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청소년 사이버폭력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협력자그룹(파트너스)과 즉각적인 소통을 통해 법률안 개정, 예방교육 운영, 예방문화 운영, 학술연구, 플랫폼 등의 주제에 대한 자문으로 사이버폭력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합니다. 외부운영위원을 구성하여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 위촉현황

분야	문화	IT	상담	교육	연구 및 정책	국회의원	외부 운영위원
파트너스 수	35	10	16	17	34	6	7



국제네트워크 참여와 구축

디지털화로 전 세계가 급속하게 가까워진 현재, 국제사회는 새롭게 나타난 문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인한 문제가 아이들이 있는 학교로까지 침투한 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푸른나무재단은 그동안 학교폭력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사회의 역량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는 그 관심을 촉구하는 대상을 국제사회 전체로 확대합니다. 푸른나무재단의 우수한 커리큘럼과 솔루션 모델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보급하며, 주요 활동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넓혀갑니다. 푸른나무재단은 세계적 아동·청소년 폭력에 관심을 가지는 글로벌 NGO이자 UN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 ECOSOC-Net NGO지부, UN Global Compact 회원으로, 전 세계에 학교폭력 및 아동·청소년 폭력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푸른나무재단은 국제정상회담 및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UN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 본회의에 참여하고 사이드 이벤트를 개최하거나 성명문을 발표하며, 국제적인 아동·청소년 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 대표단을 선발하여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막아시아재단-푸른나무재단 포럼 공동 개최, 사우디 아랍국 개최 디지털웰빙회담 연사 참여 등을 통해 경험과 지식을 쌓고, 국제화에 대한 지향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0 디지털 시민교육 및 사이버폭력 예방사업 기초선 조사

참여 국제기구·사회활동가·정책입안자·청소년 19,203명
방법 국제회의 참여 5회

- 2월_제58차 UN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 본회의 참석, 캠페인 진행, 청소년 대표단(4명)
- 7월_UN여성지위위원회 공청회 참석
- 7월_세계사회복지대회(Global Agenda for Social Work) 참석
- 7월_막아시아재단-푸른나무재단 포럼 공동개최 및 연사 참여
- 10월_Better Today Conversations 라이브 토크 연사 참여

2021 디지털 시민교육 및 사이버폭력 예방에 대한 필요성 국제사회 공론화

참여 국제기구·사회활동가·정책입안자·청소년 2,775명
방법 국제회의 참여 5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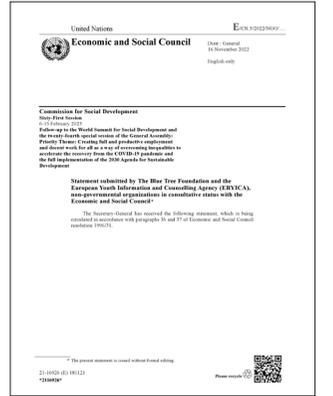
- 2월_제59차 UN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 본회의 참석
 - 서면성명문 등재(전 세계 청소년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사이버폭력 예방 액션플랜: 6대 친사회적 역량과 4대 솔루션)
 - 구두성명문 발표(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정책제안과 다자간 협력)
 - 미국 NGO(Concepts of Truth)와 사이드이벤트 공동 개최 (현대의 디지털 딜레마: 청소년·가족을 위한 건강·존엄성의 보호)
 - UN 청소년 대표단 활동(7명)
- 3월_제65차 UN경제사회이사회 여성지위위원회 본회의 참석
- 6월_NextGen Leadership Program 강연(아시아 8개국 청소년 대상)
- 6월_POLCYB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세미나 참석
- 7월_제19차 사이버스페이스 컨퍼런스 연구초록 승인
- 11월_제19차 사이버스페이스 컨퍼런스 발표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실천적 함의 연구)



2022 디지털 시민성 확산 및 지속가능한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요청

참여 국제기구·사회활동가·정책입안자·청소년 6,620명
방법 국제회의 참여 5회

- 2월_제60차 UN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 본회의 참석
 - 미국 NGO(Concepts of Truth)와 공동제출한 서면성명문 채택 (팬데믹 이후 악화된 사이버폭력과 정서적 빈곤 문제의 해결방안: SDG16(제도)과 SDG17(국제협력)을 중심으로)
 - 구두성명문 발표(팬데믹 이후 악화된 사이버폭력 문제 해결 : 법과 교육의 중요성)
 - 세계청소년연맹 아시아-태평양 지부(World Youth Alliance Asia Pacific)와 사이드이벤트 공동개최(또 하나의 팬데믹: 사이버폭력이 유발한 청소년 정서적 빈곤의 현황 및 해결방안)
 - UN 청소년 대표단 활동 (7명)
- 3월_사우디 아랍국 개최 싱크디지털웰빙회담 연사 초청 및 발표
- 4월_UN글로벌컴팩트 참여보고서 제출
- 6월_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 프로젝트 선정
- 10월_세계사회복지대회 발표(포스트팬데믹, 떠오른 청소년 디지털 웰빙 문제: 교육과 문화를 통한 해결)
- 11월_에일모의유엔코리아(YMUNK) 연사발표
- 12월_아시아태평양 신홍리더 컨퍼런스 연사 초청 및 발표(사람중심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술과 사이버안전의 역할)



2023 지속가능한 디지털 시민성 확산 및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디지털 웰빙 국제기구 설립 요청

참여 국제기구·사회활동가·정책입안자·청소년 13,666명
방법 국제회의 참여 2회

- 2월_제61차 UN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 본회의 참석
 - 유럽청소년정보상담협회(ERYICA)와 공동 서면성명문 발표 (생산적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기술 발전의 역기능과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
 - 구두성명문 발표(청소년의 지속가능한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디지털 웰빙의 중요성)
 - 사이드이벤트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및 유럽청소년정보상담협회(ERYICA)와 공동 개최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디지털 웰빙 실현과 디지털 불평등 해결)
- 7월_제5회 한양대학교 모의유엔대회(HMUN) 기초강연
- 9월_제78차 UN총회 및 UN SDG Summit 참석
- 10월_2024 미국 국제학술대회 SSWR(사회복지연구학회) 연구 초록 승인 (청소년 사이버폭력 측정도구 개발연구: 생태적 요인의 다자보고 측정)



